

단 원 8

요한복음 8장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음행하다 잡혀 온 여인
예수는 세상의 빛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자유인과 종
예수와 아브라함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요한복음 8 : 1~11을 읽으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할때에 관해 매우 좋은 규율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요한복음 8 : 7)

예수님은 충분히 그 사람의 죄를 서술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말아야 합니다.



연구과제

- 1 요한복음 8:7을 암기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때마다 이 구절을 당신을 위하여 인용하십시오.
- 2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는 세상의 빛

요한복음 8 : 12~20을 읽으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죄를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밝은 빛과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또한 천국으로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24 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인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 3 요한이 전한 복음서 앞에 쓴 서문으로 되돌아 가서 요한복음 1 : 1~9을 다시 읽으시오.
- 4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나?
 - a)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비취주는 진정한 빛이시며 우리에게 천국으로의 길도 또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 b) 왜냐하면 그는 항상 낮동안만 가르치시고 밤에는 가르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 c)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밤에 사용하는 램프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8 : 21~30을 읽으시오.

다시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못하는 곳으로 감으로써 그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육신의 아들은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 니고데모와 어떻게 말씀을 나누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연구과제

5 23, 24, 28, 29절을 세번 읽으시오.

6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7 요한복음 3 : 14~21을 다시 읽으시오.

자유인과 종

요한복음 8 : 31~47을 읽으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죄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해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한 짓을 왜 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지만 또 그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종에게는 항상 주인이 있는데 죄 지은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그는 죄와 악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복음 8 : 31, 32, 36)



연구과제

- 8 요한복음 8 : 31, 32, 36을 암기하시오.
- 9 죄의 종인 당신의 친구들이 예수님안에서 자유를 찾으도록 기도하시오.

예수와 아브라함

요한복음 8 : 48~59을 읽으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러한 사실들이 그들을 성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탄의 종이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까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관해 말했을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알게되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현재 형인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4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14)

이 말은 몇몇 지도자들을 화나게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안전하게 성전을 떠나셨는데 이것은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때는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과제

- 10 예수님은 자신과 아브라함에 관해 무어라고 말씀하셨나?
- a) “아브라함 또한 나의 아버지이다”
 - b) “나는 아브라함을 본적이 없다”
 - c) “아브라함이 나기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정 답

4 a)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비취주는 진정한 빛이시며 우리에게 천국으로의 길 또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10 c) “아브라함이·나기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6 니고데모